

사무엘하 14장 12-17절 말씀

③

12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4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15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17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